

# 섬과 종교 : 마라도의 상징성과 종교\*

현 해 경\*\*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상징공간으로서의 마라도 개관
- III. 종교와 상징공간으로서 마라도
- IV. 종교갈등과 사람들
- V. 종교와 상징공간의 관계 및 결론

## I. 들어가며

제주도의 마라도는 국토의 '최남단'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방문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1999년 입도 방문객은 총 164,747명이었으며, 1일 평균 입도수는 450명이었다.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마라도를 찾은 사람은 125,645명으로 1일 평균 453명이었다. 마라도를 찾는 사람들은 관광객과 낚시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최소한 1시간30분에서 길게는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머물렀다 간다는 점에서 이곳의 84명밖에 안 되는 거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sup>

\* 이 글은 2000년 [바다와 섬의 사회사] 한국사회사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 글은 현지조사 중간보고서 정도에 해당한다.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사회학/e-mail : syaron0629@hanmir.com

1) 주민등록상으로 마라도에 등록된 인구는 84명이지만, 실제로 마라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40~50명 안팎이고, 모슬포 등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여 상시 거주자는 관민을 다 합쳐 30~40여명에 이른다. 특히 관광비수기에는 거주민 절반 이상이 모슬포나 제주시 등지로 나가 있어 20~30명만이 마라도에 상주하고 있다. 특히 이 거주민 중에는 절반 이상이 민박이나 식당, 낚시업 등을 하기 위한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어 원래 원주민 원주민의 수는 20명 내외를 이르고 있다.

이곳 마라도의 생활기반은 해녀들의 물질과 관광객 및 낚시꾼들을 위한 관광판매업이 중심이고, 그중 해녀의 물질은 인구 중 19%인 16명의 원주민들이, 관광판매업은 70% 이상이 외지인이 맡고 있다.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모슬포 및 제주도 등지에 나가 있어 이곳의 원주민문화를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관광객이나 낚시꾼 등, 외지 입도객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sup>2)</sup>

이들 외지 입도객들은 '국토의 마지막 종점 또는 국경의 시작이라는 최남단'이 갖는 의미에 몰입해 이 상징적 공간에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길 원하고 그들의 그러한 관념은 상징적 표상(figurative quality)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단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나 공공기관조차 그런 상징적 표상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다. 상징공간으로서 마라도의 입도는 개인들의 집회나 의례 같은 일시적인 모임에 의한 집중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숭고한 관념의 출처가 되며 그것에는 상징을 창조하는 힘이 내장되어 있다.<sup>3)</sup> 그래서 마라도라는 상징적 공간은 이질적인 개인들의 감정이 공동으로 체험되고 행동되어질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상징적 표상의 대표적인 흔적들은 개개 외래 입도객들이 쌓아놓은 돌탑과 단체들의 기념비, 각각의 종교들-성당, 교회, 사찰, 할망당 등-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입도객들의 종교적 심성을 자극한다. 이런 상징적 표상들은 9만8천여 평의 전체 면적 중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마치 이곳은 종교의 성지처럼 보여지게 하고 있다.<sup>4)</sup>

마라도라는 상징공간의 영역 하에 일반적인 기원, 바램은 신성한 것들로 변형되어 마라도에 입도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은 새로운 종교적 신념이 되고 구체적인 물질적 대상으로 구체화되며, 이것들은 하나의 상징으로 숭배되고 있다. 이 새로운 숭배대상은 입도객들의 숭배대상이 되며, 끊임없는 모순 극복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표상으로 드러난다.

동일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형성된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 각각의 느낌을 표현해주는 동일한 기호에 의해 이 공간을 지각한다. 이 공간

2) 관광객들이 입도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II장 참조

3) 정근식 (1998), 김종엽(1998), Ozouf, M.,(1988), Durkheim E · 노치준 외(역)(1992) 참조.

4) 필자가 재단이라고 표현 함은 종교성이 가미된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타부의 구역에 들어온 것처럼 여기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안에서 상징표상의 중요 위치에 자리한 종교는 마라도에 입도해 상당한 면적의 종교건축과 상징기호(문장, 기념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 종교는 이런 상징표상의 공유와 종교의 권력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자기 신성화 노력과 기득권 획득 작업을 위해 마라도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주민과 타종교간의 종교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무척이나 조용한 마라도 종교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종교가 갖는 의미는 의외로 커진다. 섬이라는 특수성과 최남단이라는 상징공간으로서의 마라도를 두고서 종교간의 상징성 확보를 점유하기 위한 노력이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마라도에 입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 관념과 표상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관념과 표상에는 마라도의 어떠한 상징들이 관계하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상징공간으로서의 마라도 개관

### 1.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마라도

마라도 접안지 입구에 서서 관광객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들이 마라도에 입도해서 처음 갖는 관심은 보통 네 종류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무선전화기이고, 둘째는 자장면이다. 세 째는 금섬(禁島)의 풍광 및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넷 째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이다.

입도객들은 접안지에 들어서는 순간 이 신기한 섬에 물질문명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무섭게 울려대는 무선전화기 소리에 감탄을 내뿜으며 '어라 여기서도 핸드폰이 되네', '여기 마라도인데 핸드폰이 되네...'라며 물질문명의 기술력을 극찬한다. 핸드폰은 외부의 일상적인 사람에게 자신이 신성한 공간에 있음을 알려주는 매개로써 다시 한번 평가되어진다.

접안지를 빠져 나오면 사람들은 매스컴 광고로 익숙해진 마라도 자장면이 판매되고 있음을 보고 누가 시킨 것도 없이 '자장면 시키신 분', '여기 이창명 자장면

이 진짜로 있네.’ 등의 언어를 내뱉는다. 그리고 나서 한라산, 산방산, 송악산, 금산, 단산 등의 풍광을 끼고 있는 마라도의 풍광을 통해 역시 최남단 금섬(禁島)의 신비한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 풍광 속에 함께 자리한 교회의 커다란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관광객들은 ‘최남단에도 교회가 있네.’라며 개척교회들의 억척스러움을 넉넉히 비친다. 그들이 마라도를 한바퀴 돌고 났을 때는 ‘이 좁은 땅덩어리<sup>5)</sup>에도 성당이랑 절이랑 성당이랑 있을 종교는 다 있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은 마라도를 나가기 전에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마라도 자장면을 먹는다. 마라도에서 자장면을 먹었다는 자부심을 외부의 일상인들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장면을 먹기 위해 예정된 시간에 배 타기를 거부하는 관광객조차 있다. 입도 관광객들의 마라도에 대한 일반적 행위유형에 대한 스케치이다.

입도 관광객들이 마라도에서 잠시라도 머무는 곳은 최남단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지점이다. 그곳에는 최남단 등대와 기념비, 돌탑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다. 관광객들은 이 최남단 지점에 닿는 순간 갑자기 신성한 지역에 들어간 건 마냥, 행동하기 시작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관광객의 다수는 돌을 집어 돌탑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가서 돌을 얹고 비원을 한다.

최남단기념비 앞에서는 꼭 사진을 촬영한다. 가장 중요한 의례를 치르듯이 그렇게 동일한 행동을 한다. 개별 성원들의 그런 동일한 행동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 다수는 마라도관광을 성지순례처럼 인식하곤 한다.

그들이 마라도를 성지처럼 인식하는데는 마라도가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근접하지 못했던 금섬이라는 관념에서 오는 신비함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마라도는 88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두 번의 도항선만이 다녔고 파도가 조금이라도 치는 날은 도저히 배가 운항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념에는 쉬이 근접하지 못하는 최남단 마라도에는 신비한 그 무엇이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한 일반 대중들의 마라도에 대한 신비화된 인식은 관광회사로 하여금 성지

5) 실제로 마라도의 면적은 9만750평으로 섬 둘레는 4.2km이며, 2000년 4월 기준 가구는 39가구로 총 인구수는 84명이다. 모슬포항에서 11km 떨어진 곳으로 북위 33도 07분, 동경 126도 16분에 자리하고 있다.

순례 상품을 개발하게 하고, 외부의 단체들과 종교들에 의해 더욱 성지처럼 성역화 작업을 하게 한다.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마라도에서 치러진 행사만 보더라도 2월에는 한국서가협회의 '새천년 통일염원 한마음 서예초대전', 문학동인 시인과 사람들의 통일염원 '마라도에서 압록강까지의 음악과 춤사위', 6월의 교회순교 자기념사업회의 '성지순례', 최북단 철원군과 최남단 남제주군 실향민들의 '남북정상회담 실향민들의 합동기원제' 등이 열렸으며, 최근에는 지역 M교회의 '마라도 사랑의 음악회'가 이어졌다.

이러한 외지 단체들과 공공기관들의 상징기호들은 끊임없이 이곳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상들은 입도객들에게 마라도에 대한 유기적, 심리적 현상의 돌개바람을 일으키며 동일한 감정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감정의 형성은 개인들에게 이곳을 성역으로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외지인들에 의한 이런 성역화, 신성화의 개념은 이곳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이곳 사람들은 이 마라도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부류는 원주민이고, 다른 한 부류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주민들은 다시 둘로 나뉘어서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모슬포 등지에 나가 살며 마라도로 출퇴근형식을 취하는 사람들과 이곳에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외지인은 민박집과 낚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육지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모슬포나 제주시 등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물질'이나 소상공업을 하고 있으며, 외지인들은 모두가 민박 등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모두 합쳐야 84명에 불과한 마라도인데다, 상업용 목적으로 들어온 외지인이 전체 가구수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마라도 사람들간의 내적 유대관계는 느슨한 편이다. 마을회의가 개최되어도 외지인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모였다하면 재산권 행사와 상업에 대한 기득권 논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마을의 조직이라고 해도 해녀회가 전부이다.<sup>6)</sup>

마라도는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마을 공동체의 성격이 급속히 변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70년대 있었던 소라의 대일 수출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어업을 통해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있었는데, 70년대 들어

6) 이전에는 청년회와 수놓음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년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소라의 대일 수출길이 열리면서 해녀들의 '물질'은 더없이 좋은 직업으로 여겨졌고 이곳의 모든 원주민 여성들은 '물질'을, 남성들은 여성들의 '물질'을 통해서 획득한 채취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대일 수출길로 마라도는 농업을 폐기했으며, 그 후 자급자족 농업형태는 사라졌다.

두 번째 사건은 88년부터 운항된 '송악산호 유람선의 마라도 입도'였다.<sup>7)</sup> 유람선의 입도는 소라의 대일 수출활로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원주민들에게는 이제 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송악산호의 입도는 마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어업에서 상업으로 급격히 바꿔놓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유람선의 입도가 가져올 갈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섬에서 점점 송악산호의 기득권이 높아지면서 마을주민들과의 적잖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갈등의 이면에는 지방정부의 외면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 외면 이면에는 송악산호의 마라도 입도가 남제주군청에 해양군립공원관광료 수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sup>8)</sup> 관광수입료는 1년에 대략 2억 여원이었다. 지방정부는 송악산호에 대한 어떤 제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일 7회 운항되는 유람선과 도항선을 위해 지방정부는 민박가옥 건축을 장려했다. IMF로 중단되기 98년까지 민박집 용자지원혜택까지 주었다.

그런데 민박집과 낚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번 주민들은 주택과 대지를 팔거나 임대를 주고는 모슬포나 제주시 등지로 떠나버렸다. 혹은 집을 모슬포로 옮기고 마라도를 직장 삼아 출퇴근하는 역현상까지 벌어졌다. 2000년 10월까지 마라도 주민 한 가구만 빼고 모두 본 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부터 민박장사를 위한 외지인이 많아지기 시작해 지금 70~80%가 외지인이 되었다.

이 즈음 마라도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마라도 주민들 중 상당수가 주택과 대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주어 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해 갓 조직된 청년회 중심으로 외지인에게 땅팔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기반이 불안정한 이곳 사람들은 그러한 청년회의 운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욱이 마라도는 소수의 인구가 이런 저런 인적 연줄망으로

7) '물질'은 해녀들의 작업을 의미하는 언어이다.

8) 송악산호 유람선의 마라도 입도 과정과 갈등 그리고 마라도의 생활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9) 1인당 1,500원의 관광료를 남제주군에 주고 있는데, 1일 평균 450명(99년도 기준)으로, 1일 67만5천원, 1년(99년 기준) 2억4천7백12만원이다.

구성되어 있어 이 연출망 안에서 청년회원들의 개인적 시달림은 청년회 조직을 와해시키는 결과만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이 당시 청년회장이 마라도 출신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했는데 이점은 주목할 만하며 뒷장의 마라도 종교갈등의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현재 해녀들을 제외한 마라도 거주민들은 모두 민박, 낚시, 식당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녀들은 총 16명으로 모슬포 수협에 등록되어 있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특히 해녀들의 경우 고령화되어 있고, 교육율이 낮으며,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마을 내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마라도의 공간은 이곳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의 성향과 부류에 따라 다층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주민들에게 마라도는 고달픈 삶의 터전이었고, 본 도와는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소외의 섬처럼 인식되어왔다. 민박 등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돈을 벌면 떠나야 할 섬으로, 해녀들에게는 자신이 '물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상주할 작업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나 자장면, 민박, 심지어 자활복지회관이나 승마부지, 관광상품부지 계약에서도 등의 사업을 놓고도 이익이나 기득권 때문에 서로 부딪치는 일이 많았다.

전통적인 수놓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에는 어떤 협력기구도 없는 셈이다. 마을의 공공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람들은 먼저 '돈이 나에게 생기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논의에 참여한다.<sup>10)</sup> 심각하게 본다면 공동체의 해체까지도 짚어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마라도의 정체성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바라보는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

2000년 6월 3일 마라도 장시덕에서는 '국토 최남·최북단 실향민들의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합동기원제'가 열렸다. 철원군 실향민 30명과 남군 실향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의 주관은 당연 남제주군이었다. 참석자들은 남북의

10) 마라도의 공공문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물 문제이다. 마라도에서는 먹는 물을 제외하고는 빗물을 사용하는데 가뭄이 드는 계절에는 긴급 급수를 모슬포로부터 제공받으며, 이때도 예를 먹는다. 또한 각 상가들의 물품값의 차이도 서로에게 말썽이 되서 가격담합까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라면 전체 마라도에 해가 되더라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리장님은 출장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마을 내에 돌고 있는데, 이것은 역대 마을 리장들이 모슬포나 제주시 등지에서 일을 하고 마을에 계속 상주하지 않는 데서 나온 말이다.

분열과 갈등 해소, 이산가족 재회 등을 기약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정상회담 성공개최', '평화통일 염원' 등의 글자가 새겨진 회담일을 뜻하는 612개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해 9·10월 백두산·한라산 교차 관광 때에는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담은 기념비도 마라도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마라도는 이제 더 이상 낙도가 아닌 것이다. 마라도는 성지인 것이다. 제를 지내고, 비념을 기원하는 제단인 것이다. 지방정부에게 마라도는 이제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상징화를 위한 제도와 혜택이 전면 수정되고 있다. 마라도 주민에게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상징화와 별로 관계없는 사항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다. 물 문제나 인구유입정책, 재산권문제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지방정부는 마라도 섬 전체를 건축허가 대상구역으로 행정 예고하였다. 그러나 남제주군의 이 공고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남제주군은 마라도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잇따르자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29만9346㎡에 이르는 섬 전체를 건축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해 건축행위를 규제키로 공고한 것이다. 준농림 지역인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60평 이하 또는 2층 이하 건축물은 신고도 없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다. 이때문에 상업시설 등의 목적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서서 마라도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게 남제주군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며 공동 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마을 주민들은 어업만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관광소득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마당에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마라도 주민들의 생활기반에 대한 초고의 생각도 없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마라도라는 상징성의 공유 문제는 마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마라도는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2000년 7월에 지정되었다. 최남단이라는 상징성에 웃고 상징성에 울고 있는 마라도의 모습인 것이다.<sup>11)</sup>

## 2. 마라도에서 일어나는 상징표상의 형태들

사람들의 상징표상에는 언어와 문장, 건축, 예술 등 다양한 상징기호들이 마련된

11) 정근식(1996)과 조성운(1998) 참조



다. 마라도라는 상징공간에서 일어나는 상징표상들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Ⅱ-1에서 살펴보았듯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표상들은 본인이 최남단에 왔다는 것을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표현하는 무선전화기, 자장면, 언어들로 구성된다. 그들에게는 금섬인 이곳에서 핸드폰이 울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구나 내가 마라도에 있음을 알려야겠다는 집합적 관념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신성한 구역에 그들이 들어왔는데, 일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더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의식이 발동한다.

문명의 중심인 도시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섬에서 무선전화기 통화, 자장면 먹기 등을 통해 텔레비전 광고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하고, 물질문명의 혜택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특권 의식을 통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신비감이 재생산되었다. 그들은 금섬, 오지의 섬 등으로 인식하고 있던 마라도에서 도시생활의 일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며, 그곳에서 무선인터넷, 화상전화기 등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테크노피아의 경지를 실감한다. 그러면서 마라도가 일상의 의식으로 들어간다고 보다는 테크노피아의 실현을 보여주는 신비의 장소로 이미지가 형성된다.

입도 관광객들의 동일한 관념에서 출현해 표상을 이루는 많은 것들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언어들이다. 그들의 언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네 가지 부류로 나뉘 볼 수 있다. 무선전화기, 자장면, 풍광, 종교에 대한 언어 등이 그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표상이 돌탑이다. 최남단 일대를 비롯해 마라도 곳곳에서 보이는 이 돌탑들은 수 천, 수 만명의 관광객들이 비원을 하면서 쌓은 것들이다. 이 돌탑의 시작은 분명 한 개인의 행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적 행위는 이제 돌탑을 보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돌탑 위에 돌을 얹고 자신도 비원을 하고 싶어하는 동일한 관념을 만들어낸다.

개개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라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동일한 언어와 행위들을 내뿜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통적인 언어, 즉 공통적인 표상이 마라도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마라도라는 동일공간이 전혀 다른 개인들에게 동일한 관념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동일 관념들은 동일한 언어, 동일한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이 남긴 표상의 흔적은 무엇일까? 이곳 사람들이 남긴 흔적 중에 두드러진 것은 원주민들의 할망당이다. 원주민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다. 그들은 마라도 서북쪽에 있는 할망당의 신자들이

다. 그들은 마라도 땅에서 난 신을 무시하고서는 그 땅을 밟고 생업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생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집단 관념을 갖고 있다.

바다에 몸을 맡겨야 하는 해녀들의 관념은 매우 동일한 것이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조류나 파도에 휩쓸려 조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또는 식인 고래나 상어에 의해 자신이 해를 입을 지도 모른다는 관념, 그리고 이 토속신을 버리고서는 마라도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물건도 얻을 수 없다는 것 등은 동일한 관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할망당은 생업 및 생명과 관련된 신앙이며, 부모에 의한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마라도에 대해 이들이 갖고 있는 표상은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표상과는 다른 것이다. 신성스러움이라기 보다는 두려움이며, 복종인 것이다.

마라도 사람들에게 있어 자연재해는 어느 곳보다 두려운 존재이다. 그것은 비단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또한 그러한 것이다. 이들에게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은 여전히 생명수이며, 바다는 그들의 작업터이자 길이다. 그러나 파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날은 여치없이 이곳 사람들은 섬 안에 갇혀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할망당 신앙을 통해 볼 수 있는 마라도는 각박한 삶의 터전인 것이다.

할망당 외에 이곳 원주민들의 관념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은 이곳 원주민 공동체가 오래 전부터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곳 마라도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 중요한 관념은 이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마라도를 나서는 것이다. 마라도는 돈을 벌기 위한 작업장이다. 이곳 마라도 공동체는 이제 상업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며, 원주민 공동체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

그들의 표상은 돈을 위한 장사, 상업 등으로 나타난다. 그들이 전개하는 캐릭터 사업 또한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사용권은 마라도 내에서 상업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정되고 있으며, 모든 시설과 건축은 관광객의 돈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마라도에는 조립식이나 시멘트 가건물의 민박집과 횃집이 17개정도 된다.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집은 3~4군데이고, 모두 외지인이 운영을 한다. 그러나 자연 마라도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보다는 일단 벌기 위한 목적 하에 지어졌다. 관광객이 보면 눈에 거슬리는 건물들이 많다. 이것은 관광객에 실망을 준다. 이 점을 지방정부에서 놓치지 않고 보았다. 그래서 남제주군에서는 건축행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 마라도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 첫 움직임을 보이기 시

작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은 생존권 대 청정지역화, 성지화의 마찰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마라도를 성지 및 청정지역으로 남기고 싶어한다.

그러한 결심은 최근에 이뤄진 것이다. 88년 송악산 유람호의 입도 이후 연 평균 400여명이 찾는 이 섬의 의미를 청정화, 성지화시킴으로써 더불어 남제주군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싶어한다. 마라도에 있는 행정들의 표상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기념비와 입간판들이 말해준다. 청정지역보존에 따른 각종 규제들을 적어 놓은 입간판들과 그들이 세우려는 남북정상회담 기념비,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들은 그들이 마라도에 갖는 관념의 표상이다.

남제주군에 있어 마라도는 제단이다. 신성한 제단의 개념이다. 마라도의 자연환경이 그만큼 뒷받침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가 그러한 상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정부만은 아니다. 이곳에 들어온 종교의 경우에 더 극명히 드러난다.<sup>12)</sup> 마라도에 입도한 종교는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마라교회와 기원정사 뽕찌웅풀라 성당 등 세 개의 종교가 들어와 있다.<sup>13)</sup>

교회 및 사찰, 성당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마라도 면적의 4%를 차지한다. 특히 마라도에는 관공서 및 이 종교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섬 면적 전체의 8%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때 섬 상징성에 대한 행정과 각 단체들의 자구 의미부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식적인 행정기구가 아니면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종교건물은 종교집단의 마라도에 대한 집합적인 관념이 표상으로 드러난 것이며 그들이 마라도의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장의 논의부터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Ⅲ. 종교와 상징공간으로서 마라도

모슬포와 마라도를 잇는 해로를 따라 배를 타고 들어가다 멀리서 마라도를 바

12) 특히 마라도에는 85년과 86년도에 많은 비문들과 간판, 관공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남제주군에서 어떤 일들이 이 현상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차후의 조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다.

13) 문선명의 통일교가 입도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점은 조사중이다.

라보면 섬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교회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라도에 발을 들여놓으면 들리는 찬송가와 염불의 오묘한 조화가 사람들을 당혹시킨다. 커다란 섬 교회 안에도 불교 사찰이 있었던 것이다. 교회와 사찰은 사람들이 섬을 들고나는 시간 동안 성가와 염불을 스피커를 통해 섬 전체로 내보낸다. 섬에 처음 발을 댄 사람들은 대부분 당혹감을 드러낸다. 최근에는 새로 들어선 멋진 건물 하나에서 사진을 찍겠노라고 문을 두드리면 그곳이 성당임을 알고 놀라게 된다.

이들 각각의 종교들은 서로 2-3백 미터의 간격으로 세워져 있어 마치 종교 박물관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곳 마라도 원주민들의 시각이 고울 리는 없다. 그런데도 종교들은 그나마 종교건물들이 마라도에 있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종교인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종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곳 마라도에 입도한 종교들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라도의 뛰어난 풍광과 더불어 신비감을 줄 수 있도록 건물 걸모습을 꾸며놓았다. 사찰은 핀란드형 통나무로 지었으며, 성당은 전복 모양을 토대로 외관이 지어졌다. 교회의 경우도 ㄷ자형에 큰 십자가를 단 건물 형태로 지어져 마라도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종교 건물들의 외관에 감탄한다. 오지 마라도에도 이러한 멋진 종교건물들이, 특히 ‘우리 종교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는 감동에 젖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오로지 마라도라는 장소와 종교건물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매력인 것이다.

마라도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건평은 부지면적을 합쳐 총 4천여 평으로 마라도면적의 4%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종교의 토착 신자수를 보면 마라도교회의 경우 3가구만이 신자이며, 기원정사의 경우 마라도에 거주하는 5-6명의 신자와 제주도와 부산 등지의 불명확한 30~40명의 신자가 있다. 성당의 경우 부산 프렌체스코 수도회에서 기획하고 대연성당에서 출연한 것으로 마라도에는 1명의 신자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산 대연성당의 신자를 마라도성당 신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마라도 현지 신자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 84명 중 12명으로 14.3%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건물의 외관에 종교들이 힘을 쏟는 것은 마라도라는 신성공간에 제단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상징성을 확보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들 종교는 마라도의 신성공간을 통해 종교의 힘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14) 개신교 일반에 대한 것은 김병서(1995), 노치준·강인철(1997), 차성환(1992), 차은정(1997), Bell, Catherine(1992), R.N. Bellah·진영석역(1982)를 참조하였다.

마라도에 제일 먼저 입도한 종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라교회이다. 마라교회는 1984년에 입도하였는데,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E이다. E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최남단 마라도에 교회를 지은 것은 땅끝까지 복음전파를 이루었다는 선교의 소명적 실천임을 누누히 강조해 왔을만큼 마라도라는 공간을 통해 일찍부터 상징성 확보작업에 나섰다.

마라도 입도 과정에서 마라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 굉장히 어렵게 정착했다 적어도 원주민인 C가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공동체와 적잖은 마찰을 겪었다.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마라교회는 비로소 마라도에서의 기반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C가 마을 내에 상당 부분의 기득권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뤄졌다.

마라교회는 최남단 마라도에서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그곳은 봉화대가 있었던 위치로 마라교회의 위치는 성지로서 돋보일 수 있는 조건을 가졌으며, 입도객들에게 굉장히 큰 종교적 상징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상징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는 E의 카리스마를 받쳐주는 원천이 되고 있으며, 최남단 마라도에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라는 전제는 그의 새로운 교회 개척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마라교회는 교회 재생산에 들어가고 있다.<sup>15)</sup>

기원정사의 경우 '해수관음보살'이란 새로운 신의 등장은 마라교회보다 마라도 주민들에게 덜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었다. 기원정사는 1985년 F가 일본 법회에 갔다가 알게 되어 그때부터 양어머니로 모시게 된 L씨의 출연 자금으로 짓게 되었는데, F는 경북출신으로 일봉제자로 영주 부석사 출신이며, 제주 시내에서는 법성사 주지와 제주불교 신문발행 및 금강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1985년 제주도에 왔다가 최남단 마라도를 들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마라도에 사찰을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sup>16)</sup> 그러나 마라도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축자재를 바지선으로 수십 번 옮겨야 하는 어려움과 부두가 없는 지역이라 날씨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바지선이 운

15) 이 부분은 상업적 기득권을 둘러싼 종교갈등에서 잠시 다루고 있다.

16) 그 즈음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통나무집에 2-3백년 간다는 말에 호감을 가져, 어렵게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직수입한 원료와 기술진으로 마라도에 통나무본당을 건축하였다. 마라도라는 공간에 2-3백년을 견뎌온 사찰이 있더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F스님의 개인적인 명예심이 사찰을 짓는 심적 계기가 되었다면 강순옥씨의 자금이 물적 기반을 조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해수와 해풍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애타단지가 되고 있다.

항될 수 없었다. 건축비용이 다른 곳보다 2~3배가 소요되었다.<sup>17)</sup> 사찰의 건축을 위해 핀란드에서 통나무를 수입했는데, 그 건축기간이나 비용은 큰 것이었다. 그래서 F는 제주시내에서 불교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양어머니로 관계를 맺게 된 L씨의 자금으로 90년도에 이르러서야 완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완공 후 기원정사를 주로 이용한 사람들은 법성사의 신자들과 금강유치원 자모들, 그리고 서울 및 경북 등지의 신자들이었다. 그렇다고 대법회 등 불교행사가 정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항선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조금이라도 기상이 나쁘면 몇 일이라도 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불공은 순전히 신자 개인의 책임 하에 입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금강유치원 및 경북 지역의 신자가 많은 것은 F의 개인적인 연줄과 관련 있다.

이렇게 지어진 기원정사는 사찰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국토최남단 마라도불교 성지 해수관음기도도량'이라는 입간판을 세워 사찰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에게 이곳이 성지임을 알려준다. 사찰 내에 성지임을 알리는 해수관음상을 세워놓는 것을 비롯해 '세계불교 평화의 날'을 공포하여 그 기념비를 세웠으며, '세계불교 법왕일봉존자'의 기념비와 기념상을 세웠다. 사찰 곳곳에 성지를 표시하는 많은 기념비와 기념상들을 세워놓았다. 이점에서 순조롭게 마라도에 입성한 기원정사의 여유를 볼 수 있다. 기원정사는 다른 종교에 비해 굉장히 적극적인 성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마라교회가 원주민들과의 마찰로 시간을 들이는 동안 기원정사는 자기확장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라도에서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뽀르찌웅꼴라 성당은 2000년 8월 2일에 축성식을 했다. 축성식에는 부산 대연성당의 신자 200여명이 입도하여 신축된 성당 안을 가득 메웠다. 축성은 부산 대연성당의 주임신부를 축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곳 마라도의 G씨가 뒷새를 막아주었다는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마라도의 성당은 서귀포 출신이면서 제주교구의 신자인 H씨가 설계했는데, 마라도에서의 대지매매와 건축을 위해 사람을 물색하던 중 고교 친구인 G씨가 7~8년 전부터 마라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그를 통해 대지매매와 건축작업 동안의 일들을 들봐주도록 했다. 물론 G씨도 카톨릭신자였다. 그러나 부산 대연성당과 H씨가 G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은 마라도 주민의 반감을 가장 짧은 시기에 최소화시키면서 입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17) 88년도 기준 평당 350여 만원의 건축비가 들었다고 한다.

성당이 빠른 시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요인에는 마라도 공동체의 연대가 험거워진데 있었으며, 또한 성당의 마을에 대한 물량공세도 한 몫을 했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뽀르찌웅꼴라 성당이다. 성당은 신축된 지 얼마 안되었고 제주교구의 허락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회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담당신부가 아직 결정이 안 나 있는 데다 국토 최남단의 성당이라는 이 상징적 이미지를 어떤 표상으로 보여줄 지는 초미의 관심이다.

각각의 종교들은 마라도 입성을 위해 원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입성 후는 성지화하기 위한 작업을 늦추지 않았다. 각각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그러하다. 마라도는 작은 종교들의 성지이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그들의 기반을 보충하려 한다. 소수파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신의 기반을 획득하려는 것처럼 마라도의 작은(혹은 소수파) 종교들은 그들의 불안정한 사회의 기반을 획득하기 위해 이곳 마라도의 상징성을 자신들의 종교로 이전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교회나 사찰만은 아니다. 다른 소수 종교와 교회들이 마라도에서 직접적인 종교행사가 아닌 문화행사를 갖고 그들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도 드러난다.<sup>18)</sup> 그러한 행태는 종교만이 아닌 행정기구에서도 보여진다. 행정기구에서의 행동은 일단 여기서는 보류하기로 하겠다.

마라도에서 작은 종교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불안정한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상징적 힘의 획득이다. 상징적 힘을 통해 사회에서의 불안정한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고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종교들은 마라도에서의 상징적 힘을 많이 확보하길 원하며, 그 상징적 힘과 상징성을 판 돈으로 자신들의 교회의 입지를 굳히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마라도 내에서의 기득권 싸움은 그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며, 그 갈등은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된다. 하나는 상징성 확보로 자신들의 종교는 최남단 마라도에 유토피아를 구상하고 있다는 일련의 상징적 행위, 또 다른 하나는 그 상징성을 팔고 확보하는 돈으로 자신들의 작은 종교를 큰 종교로 세우는 혹은 종교지도자들의 개인적 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금을 획득하기 위한 마라도 내에서의 상업적 기득권에 대한 갈등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 갈등의 문제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는 다음에서 논의하고 있다.

---

18) 모슬포교회 등

## IV. 종교갈등과 사람들

### 1. 상징성의 문제와 종교갈등

마라도 종교들의 갈등은 앞서 말했듯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최남단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마라도에 각각의 종교적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갈등이며 다른 하나는 최남단 마라도라는 상징성을 팔고 얻는 자본금에 대한 상업적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자는 종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인 반면, 후자는 상업을 하고 있는 거주민들과도 연관되어 그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넓은 갈등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상징성의 갈등은 우선 그들이 좁은 공간에 근거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최남단이란 상징적 공간에 각각의 이질적인 종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마라도교회와 기원정사, 그리고 성당은 각각 2백 미터도 안 되는 거리의 간격으로 위치해 있다. 거기다 총 9만8천평에 해당하는 땅덩어리 위에 세 개의 외래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각각의 종교들의 상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토로써는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비난한다. 불교는 기독교를 '여기가 다 하나님의 땅인 줄 안다.' '여기다 자기들 유토피아세상이니 뭐니 하는... 뭐 천년왕국쯤을 세우려한다.' 등으로 표현하고 기독교는 불교를 '장사하러 들어온 절이다.' '그게 절이나? 관광지지.' 등으로 반감을 표현한다. 또한 기독교는 성당에 대해서 '마라도 등대의 상징성을 갉아먹는 흉물'이라고 표현하고 '꼭 그 자리(최남단)에 지어야 하는지?' 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그들의 이러한 반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확성기를 통한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난다.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오전 10시가 되어서 어느 한쪽의 종교가 확성기를 통해 염불이나 성가를 먼저 틀면 여지없이 다른 쪽의 종교가 확성기를 통해 그들의 찬불가나 찬송가를 틀어댄다. 이런 날 마라도에 입성한 관광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배가 나가고 나면 이들 종교들의 상징성 싸움의 하루는 접는다.

이들의 종교갈등은 타종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소명의식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적극적인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즉 다른 종교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파괴성을 보이기에는 상징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나중에 논의하게 될 상업적 기득권의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좁은 상징공간에서의 파괴적 행위란 어느 하나의 종교가 상징공간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로서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 직접적인 갈등을 표출하지 않고 거주민들을 통해 그 종교들이 나쁘게 인식되게 함으로서 또는 상업적 기득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서 그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종교들은 입도할 때 다른 종교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반응(텃세)에 신경을 쓰며, 그 반응(텃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제단에 전혀 다른 의식을 위해 자리 확보를 하는 각각의 종교가 제단을 확보하고 그 구역을 자신들의 종교라는 표상을 심기 위한 일련의 합의처럼 보여진다.

그들은 먼저 종교건물의 외관에 신경을 쓰며, 비정상적인 규모의, 또는 마라도 전체 면적에 비해 어울리지 않게 종교건물의 면적을 할당하고 있다. 마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수록 종교가 지닌 신비감을 더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공간을 표식하기 위해 신상을 세우고, 각종 기념비를 마련하며, 종교건물의 대지 안에 성지를 만들어 성지화하는 작업까지 힘을 쏟는다. 성지화 작업은 최남단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마라도와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기원정사이며, 마라교회의 경우는 좀 다른 형태를 취한다. 기원정사가 사찰 내의 대지 위에 상징적 기호들을 나열하고 있다면, 마라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라교회는 좀더 폭 넓은 구상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라교회의 신자 구조부터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라교회는 E씨 내외와 C씨 내외 그리고 E씨의 아들딸과 태양열 발전소의 K씨 내외만이 거주 신자이다. 이중 E씨 내외는 마라교회 개척 후 C씨에게 교회를 맡기고 최근 몇 달 전부터 새로이 개척한 신제주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라도에 거주하는 교회신자는 목사의 자녀들과 C씨 내외, K씨 내외가 전부이다. 이 중 목사의 자녀들은 목사가 마라도에 만들어 놓은 예수공동체가 운영하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라도 내에서 실질적인 힘은

없다. 그러나 C씨의 경우 마라도 원주민이면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E씨는 그를 통해 마라교회의 부흥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C씨의 경우 마라도라는 공간을 전부 유토피아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종교적 소명을 갖고, 보다 폭넓은 공간을 종교의 공간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C씨의 경우 신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고 선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으며, 마라도에서의 활동이 종교적 소명의 선교활동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원정사가 보여주는 좁은 공간의 외적인 화려함보다 훨씬 더 폭넓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간파하고 있는 기원정사측은 '마라교회가 마라도를 하나님 왕국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면서 불만을 표현한다.

이런 두 개의 종교적 갈등 구조에다 새로이 생겨난 성당은 어떤 상징적 입지를 확보해갈 것인가가 주목되어진다. 현재 성당은 탐색중이라고 볼 수 있다. 성당은 일단 마라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연출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기원정사의 경우 원주민 세력 없이도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의 이중 신앙구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왜 이들 종교들은 마라도에 그들의 종교를 갖고 입도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마라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은 보다 많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차후에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해보면서 조사 당시 마라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배경이나마 보자면, 먼저 이들의 공통점은 작은 종교라는 것이다. 즉 소수 교회라는 점이었다. 이 점은 마라도에 교회를 지음으로써 도심지에서의 포교활동으로 얻는 세력확장보다 훨씬 빠르게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포교활동을 하는데도 유용한 상징적 도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성지 마라도에 그들의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의 추천에 신자들은 우리의 종교가 마라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남단 마라도에 우리의 종교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종교적 소명을 보여주자는 관념이 상징적 표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각 종교의 신자들은 금섬 최남단 마라도에 입도하는 순간 그들의 성지를 방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마라도가 갖는 '최남단'이란 언어는 '우리의 종교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각각의 종교 신자들에게 마라도를 성지처럼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앞으로 성지에 따른 신화작업이 병행될 지가 필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라교회 및 기원정사의 종교지도자들이나 성당 같은 종교 단체에게는 마라도에 있는 종교건물 자체가 그들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상징적 도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러한 성지순례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무엇보다 마라도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바꾼 송악산호의 입항과 관광객의 입도가 그 한 몫을 했다.

이제 마라도의 종교들은 상징성 확장작업을 할 것이다. 그것은 종교지도자와 종교단체들에게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종교는 마라도에서의 상업적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그 기득권을 확장하려고 한다.

## 2. 상업적 기득권을 둘러싼 종교갈등

마라도 내에서의 상업활동에 대한 기득권 문제도 마라도의 종교갈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특히 마라도 내 인적네트워크와 종교간에 관계는 아주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어서 먼저 마라도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 상업적 기득권에 대한 갈등을 살펴볼 수 없다. 거기다, 마라도는 좁은 공간이라는 점, 섬이라는 점, 최남단이라는 점은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마라도의 상업적 기득권은 상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상업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주민들과도 관계가 된다. 그것은 마을의 정주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상업으로 인한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라도에서 상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 34가구수 중에 민박집이 11가구이며, 횃집(슈퍼포함)이 6가구, 최남단 기념품판매소가 1개소, 승마부지 1개소 등이다.<sup>19)</sup> 그리고 최근에 최대 수익을 내고 있는 자장면과 자전거는 자장면이 이미 4호점, 자전거가 5호점이 생겨났다. 이 자전거와 자장면은 전문식당과 대여점이라기보다는 민박이나 횃집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팔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니 총 전체 34가구 중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수는 17가구라고 볼 수 있고 이 17가구 중 복수 업종을 하고 있는 가구수는 8가구에 해당한다. 특히 이 복수 업종을 하는 경우는 마을 내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가구란 점을 간과해서는

19) 이중 2가구는 실질적으로 민박을 하지 않고 있어 9가구만이 민박집을 하고 있다.

안 된다.

섬이 작다보니, 하나의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마을사람들의 사전 허락 없이는 출시할 수 없다. 그래서 마라도 내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획득하고 있지 않고서는 그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 상품을 판다는 것은 상당한 기득권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흔히 마라도에서 장사를 하려면 1년 이상 마라도에 거주한 후에나 작은 장사라도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업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지인이 많아지면서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원주민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마라도는 최남단이란 상징성을 파는 상가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많은 외지인들로 하여금 상업의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업적 기득권을 놓고 벌이는 갈등구조의 초석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들어온 외지인들이 절대 다수여서 마을회의나 각종 마을 일에도 제대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마을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것은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에 묘한 갈등을 낳고 있었지만, 원주민으로서는 대응할 세력이 없어 거의 방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마라도의 상업적 기득권은 D씨 및 C씨를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8개의 복수상품을 파는 상가 중 적어도 4개 이상은 C씨와 연관이 있는데, 마라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가는 복지회관과 최남단민박 등이며, 이들은 모두 C씨와 연결되어 있다. 그 점 때문에 기독교공동체가 운영하는 최남단민박과 다른 상가들이 갈등이 있더라도, C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교회가 운운된다. 굳이 일상의 언어를 빌자면 '내가 교인이니까 뒤를 봐준다'는 식으로 갈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마라도에서 모슬포교회 주최로 문화전과 음악회가 '최남단민박' 뜰 앞에서 열렸다. 그런데 다른 상가가 그 공연으로 인해 자장면 판매가 '최남단민박'에 뒤졌다고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었다. 당시 자장면의 1일 수익은 30만원정도였다. 당연 C씨 등이 거론되어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그 갈등은 최남단민박대 타 상가가 아니라 C씨 대 타 상가가 된 것이었다. 즉 부재중인 목사를 대신해서 마라교회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C씨의 지시 없이는 그 공연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그가 교인이란 사실에 주목했다.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그와 갈등을 빚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와 갈등을 빚을 때는 언제나 그가 '교인'이란 사실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는데 '교인'이란 사실로 그와 같등을 빚는가? 그럼에도 C씨는 어떻게 마을 내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마라교회 입도 시기부터 송악산호 입도 시기의 C씨가 보여준 행위에 주목이 간다.

마라교회가 처음 입도하여 선교를 할 당시 마라도는 할망당 신앙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은 결집해 있었으며, 공동체는 물질 중심의 어업이었다. 그래서 마라교회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외교가 들어왔다고 하여 외면하였다. 마라도 주민들 중 교회를 들락거리던 사람들은 마을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을 겪었는데, 현재 C씨도 그 경우에 해당된다. 마라도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외래 종교의 입도는 자신들에 대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진 이유는 할망당신을 노하게 하면 그 원인으로 자신들의 물질이 잘 안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했는데, 그 와중에 C씨는 신자로서 계속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물질이 쇠퇴하고 송악산호가 입도하면서 마라도는 적잖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해야 했고, 많은 마라도 원주민들이 마라도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외지인들에 대한 토지잠식, 관광업체와의 부당한 계약 등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C씨였고, 그 시점을 중심으로 마을의 행정적인 업무를 비롯해 많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라도 내의 일에 관여했던, 혹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C씨는 종교적 소명으로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행정적으로 부상하게 되었지만 그의 부상은 마라교회의 입지를 강화시키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대응하기 힘든 행정적 권위에 도전하기보다는 교인이라는 점을 들춰냄으로써 쉽게 대응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교회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그가 개입되어 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한 목사 E씨는 마라도에서의 C씨의 입지를 활용해, 주일 예배집행 등 마라교회의 거의 모든 업무를 맡기고, 본인은 제주시내에 새로운 신제주교회를 열고 새로운 교회 확장에 열의를 쏟고 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의 확장을 위해 드는 재정적 자금은 마라도에서 확보해가고 있다. 신제주교회는 신자가 40-50명으로 이들 신자수는 교회 재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라교회는 마라도에서 재정확보를 위한 장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중 마라도 교회공동체가 뛰어들고 있는 상업은 민박과 횃집, 자전거, 자장면

사업 등이다. 마라도에서 자전거와 자장면은 특화 사업으로 올 6월에 모두 시행되었는데, 이 사업을 모두 기획한 것은 마라교회의 C씨와 I씨였다. 자전거의 경우 올 6월에서 8월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월평균 4백만원에서 5백원이었다. 자장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다 보니 마을 내에서 자전거와 자장면 사업에 사람이 몰렸고 사람들은 마라교회인들이 먼저 이 사업을 벌여 사업적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마라교회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 하더라도 친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목사와 C씨간에 십일조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는데, 제주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는 C씨가 마라도에서 벌어들인 개인사업체에 대한 돈의 십일조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제기하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점은 차후 어떻게 진행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런 마라도의 상업적 구조에서 최근 기원정사쪽에서 마라도 내 상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기원정사는 성지화 작업과 더불어 마라도의 상징성을 이용한 기념품 판매와 휴게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점은 교회측을 자극하는 일로, 교회측은 기원정사의 F씨가 제주시내에서 장사를 하다 망하니까, 그 빛이나 झा아보려고 마라도에서 장사를 벌리는 것으로 인식했고, 그런 것에 대해 F씨는 이 땅을 자기들의 천년왕국이나 만들 땅처럼 여긴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기념품 판매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 마라도에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은 최남단에 있는 기념품 판매소와 대도민박이 있는데, 대도민박은 올해부터 자신들의 민박집 한 칸에 기념품을 팔기 시작했다. 이 기념품은 마라도적인 기념품이라기 보다는 어느 관광지에서나 흔히 보이는 그런 종류이다. 그런데 이 기념품을 대도민박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최남단 기념품 판매소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는 마라도 주민과 최남단 기념품 판매소 주인 J씨간의 관광상품판매부지임대 계약에서 비롯된다. J씨는 1999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년간 1년에 1백80만원씩 임대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남단에 관광상품판매를 위한 부지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 계약과정에서 구두계약으로 마라도 내에서 어느 누구도 관광상품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한 상황에서 올해 대도민박에서 기념품을 판매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임대자인 J씨는 마을에 의의를 제기했는데, 당시 임대인으로 계약서에 날인된 마라도 주민 7명 중 3명은 모슬포로 이사한 상황이었고, 리장은 병원입원 중이었으며, 2명은 외지출신이었고 다른 2명 또한 그다지 마을

내에서 기득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C씨가 나서서 양자간의 조율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기원정사 쪽에서 관광상품을 추진하고 있어서 서로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 C를 위주로 마라도 주민들이 캐릭터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는데, 2000년 안에 캐릭터 개발과 2001년 안에 상품개발이 끝나면 2002년부터 판매하기로 계획 진행된 캐릭터 상품은 기존 기득권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상업적 구조 속에 마라도의 종교들이 놓여 있으며, 각각의 종교들은 마라도 내에서의 상업적 이득을 통해 마라도 교회의 성지화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며, 그 상징성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앞으로 성당이 어떤 활동을 펼치며 마라도 내에서의 입지를 가져나갈지는 차후에 보충해야할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 V. 종교와 상징공간의 관계 및 결론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상징성을 점유해서 성지화 하기 위한 각 종교단체들의 행위는 마라도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마라도라는 상징공간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로서 매우 적합하다. 어떤 상징적 표상이던 간에 그것이 보여지는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권력과 질서를 부여한다.

동일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상호지각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형성되는 전체에 접근하는 이미지의 형성, 군중 안에서 형성된 다양한 표상의 수용, 그러한 표상과 자신의 표상의 융합이라는 과정의 수 차례 걸친 반복, 이러한 반복으로 인한 표상의 집합성원 증대와 특수성의 감소,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것의 창조는 동일공간에서 더 빨리 더 신속히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힘을 부여한다.

그러니 동일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마라도의 각 종교는 그 종교가 갖는 특수성을 감소시키고 최남단 마라도라는 일반적 상징성을 공유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마라도라는 대상을 지각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동일한 감정과 인식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종교들은 마라도의 지리적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

쓴다.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최남단'이란 커다란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고 종교들은 그 '최남단'이란 상징성만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들은 마라도의 입도를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최남단이란 지리적 상징성을 점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것은 섬을 종교적 성지로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민 신자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형태를 진행시키고 있다. 성지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라도의 종교들의 특징은 거주민 신자는 없고 종교건축만이 마라도에 있을 뿐이다. 실체가 없는 실체인 셈이다. 마라도의 종교들은 건축물의 외관에 정성을 기울인다. 그것은 신비감과 거대함, 웅장함을 통해 마라도의 상징성을 누비기 위한 행위의 일종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속적 상업에 열심히 뛰어들다. 그것은 각각의 종교가 갖고 싶어하는 상징성의 토대를 제공하는 물적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라도 내에서의 적극적인 상업행위를 통해서 종교건축을 유지하는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마라도 내에서의 상징적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는 마라도가 협소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입도할수록 그들의 상징적 값어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득권을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섬'이라는 특수성과 '최남단'이라는 상징이 마라도를 찾는 입도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 공간을 통해 '신성'을 팔려는 종교와 그것을 지방 PR(Public relation) 시대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려는 지방행정당국, 그리고 생업의 변동 속에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원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서(1995), 『한국사회와 개신교』한울.  
 김종엽(1998), 『연대와 열광-에밀 뒤르껴의 현대성 비판 연구』창작과 비평.  
 노치준·강인철(1997), '해방 후 한국종교의 특성과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한국현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정근식(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1996년 전기 사회학 대회』.



- 정근식(1998), '사회운동과 5월 의례',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 조성운(1998), "정치와 종교", 『사회와 역사』 제53집,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 지성사.
- 차성환(1992), 『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 차은정(1997), 「1960년대 이후 한국개신교 의례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Bell, Catherine(1992),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s*, Oxford University Press.
- Durkheim E(저), 노치준, 민혜숙(공역)(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 Ozouf, M.(1988), *Festival and the French Revolution*, Massa chussetts: Harvard Univ. press.
- R. N. Bellah(저), 진영석(편역)(1982), 『사회논리와 종교』, 서울: 형설.

〈현지자료〉

- 마라도 리지
- 마라도상징디자인(캐릭터)사업계획서
- 연차별 마라도 사업계획서(98-2000년)
- 도서개발사업추진상황
- 마을회의록(1999년말총회/2000년3월10일/임시회의4.3)
- 남군청 문의 회신
- 마라리 마을규약
- 마라리 자활복지회관 임대계약서
- 승마부지 임대 계약서
- 관광상품판매부지 임대 계약서
- 제민일보 마라도 관련기사 2000년1월-9월

〈Abstracts〉

Island and Religion: A symbol of 'Marado' and Religion

Hyun, Hye-kyung

There is a famous island in the last of Jeju. It is called 'Marado(Island)'. Marado is famous for a symbol of 'The last' and 'Difficult island'. So Many people wants to visit in Marado. And then local self governing body and the religions have practiced many projects with those symbol.

Many visitors have a same interest for Marado. Also their economic behaviors are affected by those projects. So local self governing body and the religions have many interesting to economic benefit and self praise.

The while, There are conflicts between local self governing body and the religions and the native in Marado. Especially, Economic benefit is surrounded by loss and gain of the native, religions and local self governing body.

This paper is to constructed by filedwork. Also this paper is the middle paper of fieldwork. This research has been focusing on the socioeconomic changes by the religions and local self governing body in Marado.